

## 인지문법에서 본 언어현상

정 춘 회  
(공주문화대학)

Jung, Choon-Hoi. (1998). The linguistic phenomena in cognitive grammar.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 179~206.

Despite the fact that the phenomenal success of the classical model in phonology in terms of a small set of binary atomic primitives has encouraged the use of criterial features in the characterization of syntactic and semantic categories, cognitive linguists have recently found many evidences against it and proposed a valid alternative like prototype approach to classical model of linguistic categorization. In this paper the examples with prototype effects are shown in phonology, morphology, and syntax. In phonology there is no clear-cut borderline in initial sounds such as / r, m, n, v, ð, z, w, j, b, d, g / and between vowels and consonants. In morphology family resemblance is shown between strong verbs and past tenses. In syntax there is no borderline among various kinds of sentences such as declarative, command, WH-question, yes-no question, etc.

### 1. 머리말

지난 수년 동안 인지심리학에서는 범주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논의가 상당했다. 논의의 초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반대되는 경험적 증거가 많이 나타남으로서 시작된 것이다.

본 논문은 비-아리스토텔레스적 범주론인 원형범주 이론의 입장이 언어현상에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말하자면 인지심리학의 대부분의 실험대상이었던 자연류나 명사류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대부분의 언어구조 범주에 원형효과(prototype effect)가 나타남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 II. 원형효과의 출처

본 장에서는 원형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 근원을 몇가지 측면에서 고찰 해 보기로 한다.

### 1. 가족유사성

인간은 세상에 대한 지식을 ICM(Idealized cognitive model)이라 불리는 이상적인 모형을 근거로 구조화한다. 즉, 인간은 자신의 머릿속에 넣고 있는 ICM과 자신의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그 상황을 범주화하고, 그결과 ICM과 어떤 상황이 완전히 일치하는지(very well), 꽤 일치하는지(pretty well),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somewhat well), 상당히 일치되지 않는지(pretty bad), 전혀 일치 않는지(not at all)를 판단한다. 따라서 범주는 all-or-none의 개념이 아니고 등급(gradience)의 개념이며, 이 등급은 바로 원형효과와 직결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 범주의 구성원은 자격이 똑같지 않고 대표성을 띤 것도 있고 변두리에 걸쳐 있는 것도 있게 된다.

예컨대, bachelor를 통해 범주화 과정이 인지과정임을 살펴보기로 하자. bachelor의 ICM은 미혼의 성인 남자(unmarried adult man)로 정의가 가능하는데 이는 결혼 내지는 결혼 연령과 관련하여 남자를 범주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교황이나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짝(couplings), 또는 동성연애자, 정글속의 타잔같은 남자를 대하게 될 때, 이들을 총각으로 범주화할 것인지를 결정짓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총각의 ICM과 이들과를 비교하여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따져 보게 된다. 그 결과 ICM을 구성하는 조건들과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사이의 일치정도에 따라서 이들의 총각으로서의 범주화 가능성이 결정된다. 따라서 범주화 과정은 머릿속에서의 비교 과정이기 때문에 인지 과정이다.

또 다른 예로서 mother를 보자. 전통 이론에서는 mother를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개의 mother 모형들이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 모형(cluster model)을 이루고 있다. 덩어리 모형속에 들어가는 것들은 출생 모형(birth model), 유전자 모형(genetic model), 부양

모형(nurturance model), 결혼 모형(marital model), 족보 모형(genealogical model)등이 있다. 그런데 사전 편찬가들은 이들중에서 어느 한 모형에 중요성을 둔다. 따라서, 어떤 이는 출생 모형을 중심으로 mother를 정의하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부양 모형을 중심으로 하며, 또 American College Dictionary는 족보 모형을 중심으로 mother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전편찬가들의 mother에 대한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mother같은 혼한 개념에 대해 하나의 인지모형이 없기 때문이다. 즉, mother의 필요충분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ep mother, surrogate mother, adoptive mother, foster mother, biological mother, donor mother, unwed mother,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의 mother, He wants his girlfriend to mother him의 mother, mother and daughter in the tree diagram 의 mother등이 하나의 범주인 mother로 정의되는 이유는 이들과 mother 모형들이 합쳐서 된 하나의 덩어리 모형사이에 가족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나의 유전인자를 제공했으며, 나를 낳았으며, 나를 키웠으며, 가계상 나의 직계존속 여성이며, 현재 내 아버지의 아내로 되어있는 여성이 나의 진짜 어머니(real mother)인데, 이러한 진짜 어머니와 여타 어머니 사이에는 가족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mother모형에 원형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 2. 방사 구조

범주는 방사구조를 갖고 있다. 방사구조속에서 중심구성원은 확장의 가능성을 결정지으며, 중심구성원과 주변구성원(variants)사이에는 연결고리(chaining)가 있다. 이처럼 범주가 방사구조를 갖는다는 것은 원형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언어란 일반인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언어 문법이 나타내는 개념범주는 인지범주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분류사 언어(classifier language)를 통해 방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이 쓰는 Dyirbal 언어에는 명사가 쓰일 때 분류사로서 bayi, balan, balam, bala가 사용된다.

- I. Bayi : men, kangaroos, bats, most snakes, most fishes, some birds, most insects, the moon, storms, rainbows, ...etc.
- II. Balan : women, dogs, some snakes, some fishes, most birds, fireflies, scorpions, crickets, anything connected with water or fire, sun and stars, shields, some spears, some trees, ...etc.
- III. Balam : all edible fruit and the plants that bear them, tubers, ferns, honey, cigarettes, wine, cake.
- IV. Bala : parts of the body, meat, bees, wind, yamsticks, some spears, most trees, grass, mud, stones, noises and language, ... etc.

Dyirbal어 화자들이 위와 같이 사물을 분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도식이 있는 것 같다.

- I. Bayi ; (human) males ; animals
- II. Balan ; (human) females ; water ; fire ; fighting
- III. Balam ; nonflesh food
- IV. Bala ; everything not in the other classes.

그리고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있는 것 같다.(Lakoff 1987:93)

“If there is a basic domain of experience associated with A, then it is natural for entities in that domain to be in the same category as A.” (A와 관련된 경험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의 개체들은 A와 같은 범주로 분류된다)

따라서 낚시도구는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지만 fish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fish가 속해있는 class I으로 범주화된다. 또한 fruit tree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classIV에 속할 듯 하지만 이때의 tree는 딸감과 구분되는 fruit와의 관계때문에 classIII에 속한다. 또 밤하늘의 별들은 불빛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fire가 속해 있는 classII로 분류되고, 싸울 때 사용되는 창과 같은 도구는 fighting과 관계가 있으므로 classIV가 아닌 classII로 분

류된다.(Lakoff 1987:94)

이 밖에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 것 같다.

“If some noun has characteristic X but is, through belief and myth, connected with characteristic Y, then generally it will belong to the class corresponding to Y and not that corresponding to X.”  
(어떤 명사가 X란 특성이 있지만 신화나 믿음을 통해 Y란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경우 그 명사는 X란 특성이 아닌 Y란 특성을 갖고 있는 범주로 분류된다)

따라서 birds는 animals이지만 class II로 분류된다. 그 이유는 birds는 죽은 여성의 영혼으로 믿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cricket도 늑은 숙녀로 믿어지기 때문에 class II로 분류된다. 그 밖에 달과 해는 남편과 아내로 믿어지기 때문에 달은 다른 남편들처럼 class I으로 분류되고, 해는 다른 아내들처럼 class II로 분류된다.

이 외에 다음과 같은 원리가 또 있는 것 같다.(Lakoff 1987:94:5)

“If a subset of nouns has some particular important property that the rest of the set does not have, then the members of the subset may be assigned to a different class from the rest of the set to mark this property: the important property is ‘harmfulness’.”(명사의 부분집합이 나머지 집합이 갖고 있지 않은 중요한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 부분집합의 구성원은 이런 속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머지 집합과 다른 범주로 분류된다 : 중요한 속성은 “유해함”이다)

따라서 fish는 동물임으로 class I으로 분류되나 stone fish나 gar fish는 해롭기 때문에 class II로 분류된다. 또 tree, bush, vines, grass는 class IV에 속하나 stinging tree, stinging nettle vine은 해롭기 때문에 class II에 속한다. 또 여성은 신화를 통해 sun과 관계가 있고 sun은 경험을 통해 fire와 관련되며 또 fire는 경험을 통해 dangerous things과 관련되어 결국 women, fire, dangerous things는 class II에 속한다.

이상과 같은 Dyirbal 언어의 범주화를 통하여 인간의 인지가 어떻게 작용

하는지, 즉 Dyirbal어의 범주원리가 인간의 범주체계 속에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entrality ; what we called the basic members of the category are central ; the moons are less central members of category I than are men. stinging vines, gar fish are less central members of category II than are women.(범주의 기본 구성원이란 중심 구성원을 말한다. 달은 사람보다 범주 I의 덜 중심 구성원이고, 쇠기포도나 동갈치는 여성보다 범주 II의 덜 중심적인 구성원이다)

Chaining ; Complex categories are structured by chaining; central members are linked to other members which are linked to other members, and so on. For example, women are linked to the sun, which is linked to sunburn, which is linked to ....etc.(복합범주는 연결고리가 있다. 즉, 중심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구성원은 또 다른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여성은 태양과 연결되어 있고, 태양은 태양에 탄 피부와 연결되어 있다)

Experiential Domains; There are basic domains of experience, which may be culture-specific. These can characterize links in category chains.(경험의 기본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마다 다르다. 이같은 기본영역이 범주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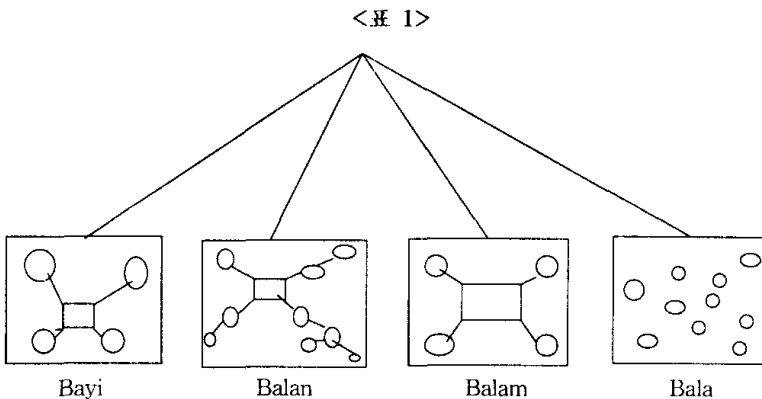
Idealized Models ; There are idealized models of the world-myths and beliefs among them-that can characterize links in category chains.(신화와 믿음의 이상적인 인지모형에 있어서 이것들이 범주의 연결고리를 설명해 준다)

No common property ; Categories on the whole need not be defined by common properties.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Dyirbal find anything in common among women,

fire, dangerous things, ...etc. Nor do they assume that there is anything feminine about fire, danger, or anything fiery or dangerous about women.(범주의 공통속성은 없다. 다이벌(Dyirbal)언어에서 여성과 불과 위험한 것들 사이에 공통속성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또한 불과 위험한 것에 여성적인 것이 있다거나 여성에 불과 위험한 것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Motivation ; The general principles given make sense of Dyirbal classification, but they do not predict exactly what the categories will be.(앞서 말한 원리들이 다이벌어의 분류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범주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지는 못한다)

이상과 같은 Dyirbal어의 분류체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방사구조를 얻게 된다.



위 그림에서 큰 네모꼴은 우주를 뜻하는데 4개의 영역으로 분리되고 있다. 이들은 소위 base model에 해당된다. 이들 중에서 Bayi, Balan, Balam은 내면구조를 갖고 있고 중앙에 작은 네모꼴인 center가 있다. 이에 비해 Bala는 내면구조가 없다. 또한 base model 안쪽에는 연결고리 구조가 있다. 이처럼

Dyirbal 어의 분류체계는 인간범주에서 쓰이는 기본 메커니즘인 방사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 3. 단어의 경계선

단어라는 언어범주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또 단어는 접사 또는 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단어 역시 다른 언어 범주와 마찬가지로 원형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분명치 못해서 단어는 구로부터 시작하여 접사에 이르기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생성문법의 틀 속에서는 어떤 분류도 그 규칙을 통해 자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생성문법에서는 단어, 명사, 동사 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원형문법의 틀 속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정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There's Jame's mother, Meet Jone's husband*에서 *mother, husband*가 단어의 신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mother-in-law*나 *ex-husband*같은 단어가 몇 단어로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답이 쉽지 않다. 더구나 *There's a man been shot*에서 축약형 *there's*는 몇 단어로 된 것인지의 문제는 더 힘든 문제가 된다. 만약 *there's*가 두 단어로 되어 있다면 두 번째 *-s*의 정체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There is a man been shot*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들을 보면 단어에도 분명한 것이 있고 분명치 않은 것이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원형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같은 직관을 밝혀보기 위해 대표적인 단어란 범주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a) 단어는 대화속에서 임의적으로 휴지(*pause*) 앞 또는 뒤에 나타날 수 있다. 또 Bloomfield의 지적대로 *word*는 최소의 독립단위 임으로 발화에서 혼자 쓰일 수 있다.
- (b) 강세가 있는 언어에서 단어는 강세를 받는다.
- (c) 단어에는 상당한 정도의 음운상 불변성이 있다. 따라서 많은 음운 규칙이 단어의 연속체라기보다는 단어의 영역안에서 작용한다. 예컨대, *impossible*의 /m/과 /p/ 사이, 또는 *insensitive*의 /n/과 /s/ 사이처럼 한 단어내의 성분 사이에서 불가피한 동화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에 비해 단어와 단어사이의 동화는 대화 스타일과 발화 속도에 따라 임의적이다.(예; good boy의 /gub bɔi/와 같은 동화작용) 또한 단어의 강세 패턴도 음운 또는 형태 구조에 의한 단어 그 자체의 속성인 것이다.(예; realist vs. realistic). 또한 어강세는 좀처럼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예; He's only fourteen vs. there are fourteen people.)

- (d) 대체로 단어는 인접하는 단어의 종류에 대해 비선택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형용사를 명사의 앞에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품사의 옆에도 형용사가 나타날 수 있다.
- (e)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I like John을 John I like처럼 John 이 XYZ의 형태에서 ZXY의 형태로 바뀔 수 있다. 또한 생략도 가능하다. 예컨대, She can sing but I can't sing → She can sing but I can't으로 된다.

위와 같은 대략 5가지의 특성은 단어를 단어보다 큰 단위인 구나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 어간이나 접사 등과 구분을 가능케 해준다.

예컨대, 접사의 특성을 보자;

- (a) 접사는 어간으로부터 독립되어 쓰일 수 없고 접사와 어간사이에는 휴지(pause)가 삽입되지 못한다.
- (b) 접사에는 대개 강세가 없다.
- (c) 접사의 음운형태는 어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어간의 음운형태는 접사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국 접사는 단어의 음운형태에 통합된다.
- (d) 어간에 붙는 접사는 선택적이다. 예컨대, 3인칭 단수표지 -s나 분사표지인 -ing는 동사에만 붙는다.
- (e) 접사는 어간에서 독립되어 이동하지 못한다. 또한 접사는 두 번 나 타난다해도 생략되지 못한다. 예컨대, singing and dancing이 singing and dance가 된다거나 sings and dances가 sings and dance가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단어와 접사의 대표적인 속성들을 열거해 보았다. 그렇다면 예컨대 정관사 the는 어떤 신분인지, 정관사는 단어의 속성은 다 갖고 있고 접사의 속성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자. 정관사 the는 다음과 같이 쓰인다.

- (a) 정관사는 독자적으로 발화에 쓰이지 못하지만 휴지가 뒤에 나올 수 있다.
- (b) 정관사는 대체로 강세가 없지만 때로는 강세가 오기도 한다.
- (c) 정관사와 인접한 어휘항목사이에는 음운상 통합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the man [ðə]→the earth[ði]처럼 뒤의 모음 때문에 the의 발음이 달라진다.
- (d) the는 어떤 품사 앞에도 나올 수 있다. 예컨대, the+형용사(the old man), the+부사(the incredibly old man), the+동사(the-dare I say old-man), the+전치사(the in my opinion old man) ...등이 있다.
- (e) 정관사는 혼자서 이동하지 못하고 이동하려면 NP와 함께 이동한다. 또한 정관사가 두 번 나타나면 생략이 가능하다. 예컨대, the men and the women 은 the man and women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the의 속성으로 볼 때 the의 신분은 무엇일까? 즉, the는 단어인가 아니면 접사인가? 정관사 the는 휴지나 강세가 올 수도 있고 또 인접어휘와의 비선택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자성이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는 정관사를 접사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발화에서 독자적으로 쓰일 수 없다거나 NP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을 보면 단어로 보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사는 접사가 아닌 단어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the는 어떤 품사와도 함께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관사 the는 단어와 접사를 잇는 연속선상에 있는 셈이다.

Taylor(1989:182)는 mother, the, 소유격 표지 -s, 과거표지 -ed 등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lt;표 2&gt;

item	can stand alone	can be separated by pause	can be stressed	phonological autonomy	selectivity of adjacent item	subject to movement and deletion
mother	yes	yes	yes	high	low	yes
the	no	sometimes	sometimes	low	fairly low	sometimes (deletion)
possessive	no	no	no	low	fairly high	no
-ed	no	no	no	low	very high	no

위 표를 보면 mother는 단어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ed는 접사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또 the는 단어에 가깝지만 접사의 성질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소유격 표지 -s는 접사에 가깝지만 -ed 같은 접사와는 차이가 있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문법의 원자적 접근을 시도하는 언어학자들은 단어와 접사의 구분을 either ~ or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런데 단어와 접사의 경계가 분명치 않다는 것은 단어 문법인 형태론과 문장 문법인 통사론이 맞물리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휘론과 통사론은 문법의 별개의 성분이 아니고 연속선상의 양쪽 끝점에 있을 뿐이다. 즉, 구가 단어로 구성되는 방법과 단어가 형태소로 구성되는 방법사이에는 명백한 구분이 없다. 이는 곧 단어라는 언어 범주에도 대표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이 있음을, 바꾸어 말하면, 원형효과가 있음을 말해 준다.

#### 4. 범주의 비대칭성(asymmetries)

범주의 원형효과는 범주의 비대칭성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 언어학에서 범주의 비대칭성은 유표(markedness) 대 무표(unmarkedness)의 연구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영어의 수 범주(number category)에서 boys는 -s라는 복수 형태소가 있다. 이에 비해 boy는 무표이다. 따라서 영어의 수 범주에서 단수·복수라는 두 구성원은 비대칭을 보여준다. 이는 곧 단수·복수가 똑같은 자격을 갖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유무 대 무표는 음운론에서도 나타난다. 프라그 언어학파에서는 두 개의 음 중 어느 하나가 어떤 환경에서 중화될 적에 중화되는 쪽을 유표, 살아남는 쪽을 무표라 했다. 예컨대, 독일어에서는 어말의 유성자음과 무성자음이 중화되어 무성자음만이 나타난다(예; Rad[rat]). 이때 무성자음을 무표, 유성 자음을 유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의미론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How short is Harry?는 Harry의 키가 작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tall-short 짝 중에서 어느 한 쪽만이 중립적 의미를 갖는다. 바꾸어 말하면 tall만이 중성화될 수 있는 환경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tall은 무표가 된다. 그래서 tall-short 대조

라는 범주에서 tall은 무표적 구성원으로 short와는 자격이 다르며, tallness는 인지상 shortness보다 기본적이며, 그러기 때문에 중립적인 환경하에서는 tall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어휘의미론에서도 유무·무표가 나타난다. 예컨대, dog와 bitch를 보면, bitch는 dog에 성(gender)를 첨가한 것으로 유표적이다. 거꾸로 말하면 dog가 더 일반적인 용어인데 반해 bitch는 특수적이다. 따라서 특수하거나 덜 일반적일수록 유표가 된다.

그 밖에 긍정-부정에서는 긍정이 무표, 부정이 유표가 된다. 예컨대, happy-unhappy와 같은 짝에서는 happy가 무표, unhappy가 유표로 그 자격정도가 다르다.

또 시제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walk-walked 짝 중에서 walked는 유표로 그 자격정도가 다르다.

이는 억양에서도 falling intonation은 무표, rising intonation은 유표로 되어 억양의 구성원의 자격도 달라진다.

또 문장에서는 평서문, 긍정문, 능동문은 무표, 의문문, 부정문, 수동문은 유표가 된다. 따라서 문장의 집합에서도 그 구성원의 자격은 달라진다.

이처럼 한 범주를 구성하는 구성원들 중에서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는 곧 원형효과가 있음을 뜻한다. 즉, 무표적 구성원은 범주의 구성원 가운데 하나만 쓴다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대표성을 띤 것이 된다.

### Ⅲ. 원형효과와 사례들

본 장에서는 원형효과와 사례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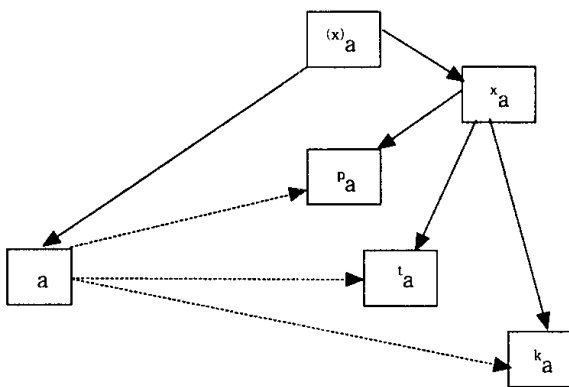
#### 1. 음운론

언어학에서 단음(phone)과 음소의 구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예컨대, 영어의 /k/라는 음소는 cool, keel, school, ski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발음

은 각각 다르다. 즉, cool은 기음을 가져오는 연구개음 [k<sup>h</sup>]이고, keel은 기음이 있는 구개음 [k<sup>h</sup>]이며, school은 기음이 없는 연구개음 [k]이고, ski는 기음이 없는 구개음 [k']이다. 영어화자들은 4개의 발음이 각각 다르지만 이들을 하나의 음소 /k/의 예들로 묶는다. 그런데 Rosch의 실험에 의하면 음소란 원형에 기초한 단음들의 범주임이 드러났다. 즉, 위에서 음소 /k/는 [k]를 원형으로 하는 [k], [k<sup>h</sup>], [k'], [k<sup>h</sup>']로 이루어진 범주인 것이다. 음소 범주는 그 범주내의 원형을 통해서 대체로 이해되며, 비원형의 구성원들(phones)은 음소 규칙을 통해 원형과 관련을 맺게 된다.

또 Langacker(1987:390)도 [a], [p<sup>a</sup>], [t<sup>a</sup>], [k<sup>a</sup>]와 같은 4개의 단음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위 그림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a]는 인지상 현저성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가장 간단하고 발생의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범주의 원형이 된다. 변이음 [p<sup>a</sup>], [t<sup>a</sup>], [k<sup>a</sup>]들은 원형에서 확장된 것인데,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a]는 기본 변이음 또는 무표형이라 한다. [x<sup>a</sup>]는 확장에 대한 도식으로 변이음들의 종류를 정의해 준다. 즉, 시발전이(initial transition)가 나타나지만 그 성격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x)a]는 [x<sup>a</sup>]보다 더 도식적이다. 왜냐면 전이가 없는 [a]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Rosch와 Langacker는 음운론도 다른 일반 범주와 같이 취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주장은 범주의 고전이론을 취하는 다른 현대의 음운이론에 대하여 재평가를 가져오는 혁신에 가깝다.

범주의 고전이론은 범주의 자질이 특정 경우에 있다, 또는 없다 식의 둘 중의 하나이며 이런 방법으로 소리의 종류를 분명히 정의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예컨대, 유성음은 모두 [+voice]라는 자질을 갖게 되고 무성음은 모두 [-voice]라는 자질을 갖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소리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Taylor(1989:231)는 영어낱말의 첫소리를 [voice]라는 자질을 통해 구분하려는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게 되었다.

- (1) most voiced ← → least voiced  
 /r, m, n/ /v, ð, z/ /w, j/ /b, d, g/ /f, θ, s, h/ /p, t, k/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두음 /r, m, n...p, t, k/ 들은 [+voice]와 [-voice]라는 두 종류로 구분되지 못하고 /r, m, n/은 가장 [+voice]에 가깝고, /p, t, k/는 [-voice]에 가까우며, /b, d, g/는 그 중간에 있는 소리들이다. 즉, 어두음 /r, m, n...p, t, k/는 [+voice]와 [-voice]로 이분되지 못하고 이 두 축의 연속 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voice]의 원형과 [-voice]의 원형이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예로서 울림도 (sonority)라는 개념을 살펴보자. 울림도에는 두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울림도는 유성음과 관계가 있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에 무성음보다는 유성음의 울림도가 높다. 또 다른 하나는 발성기관의 수축의 정도와 관계가 있다. 즉,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에 무성음보다는 유성음의 울림도가 높다. 모음은 최소한의 발성기관의 수축으로 조음되기 때문에 가장 울림도가 높다. 이에 비해 자음은 상당한 발성기관의 수축을 동반함으로 울림도가 낮다. 이같은 울림도라는 개념은 모든 소리를 모음과 자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만, 울림도라는 개념도 either-or가 아니고 more-or-less의 성질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되는 소리범주에서 모음이 자음보다는 울림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모음범주에 속하는 소리들도 그 울림도가 각각 다르



그런데 위 그림에서 음절핵을 이루는 소리들의 자격이 똑같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마치 통사구조에서처럼, 예컨대, 소유격 구조에서 NP<sub>1</sub>'s NP<sub>2</sub>에서 NP<sub>1</sub>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NP의 자격이 각각 다른 것과 유사하다. 음절핵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리는 올림도가 가장 높은 모음이 된다. 따라서 영어뿐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절은 하나의 모음과 올림도가 낮은 자음으로 구성된다. 물론 올림도가 낮다고 해서 음절핵의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가능성이 적어질 뿐이다. 예컨대, /l/과 /n/은 모음이 아니나 음절핵의 기능을 한다.(예; mutton[mʌtn], little[lɪt])또 다른 예로서 발음을 빨리 할 적에 모음이 강세가 없어 생략되면서 올림도가 낮은 소리를 음절핵의 위치로 밀어내는 경우이다. university는 빨리 발음할 때 /n/과 /s/가 생략된 모음사이에서 음절핵의 기능을 한다.([juːnɪvɜːsti]). 그 밖에 강조 할 경우 음절핵의 자격이 비모음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다. brilliant에서 첫 번째 음절은 [brɪ] 가 되는데 강조할 경우에는 [brɪliant] 가 되어 [r]이 음절핵의 자격을 갖는다. 또 주의를 끌기 위한 psst! 나 떠는 소리 brr!에서 /s/, /r/은 음절핵의 자격을 얻고 있다.

이상을 통해 모음뿐만 아니고 자음도 음절핵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또 자음의 음절핵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음이 음절핵이 될 경우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또한 이같은 제약은 /l/, /n/, /s/, /r/ 등의 음절핵이 주변적임을 말해 주며, 이는 올림도에 근거한 음절핵에도 원형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해 준다.

## 2. 형태론

영어의 형태론에 원형효과가 나타남을 3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 1) 과거시제의 원형효과

과거시제의 중심의미는 말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어느 시점에 사건이나 상태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시제는 주로 직시의 시제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시제가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나 상태의 비현실성



(또는 사실과 반대)을 뜻하기도 하고, 화용상의 부드러운 표현(pragmatic softener)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과거시제가 사실과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대개 ① if-조건절이 나오던가, ② 소망이나 희망을 표현한다거나, ③ 제안이나 가정(supposition)을 나타낸다.

- (3) If I had enough time, ...  
 (4) (a) I wish I knew the answer.  
       (b) I would be nice if I knew the answer.  
 (5) (a) suppose we went to see him.  
       (b) It's time we went to see him.

(3)에서의 과거시제는 말하는 시점 이전이 아니고 바로 말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 사실과의 반대를 나타낸다. 즉, 말하는 그 순간에 화자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4)에서는 말하는 순간에 화자가 대답을 모른다는 뜻이며, (5)에서는 과거로 표현된 명제가 말하는 순간 이후에 일어날 일로써 미래를 뜻한다.

또한 다음 문장을 현재 시점에서 사실이 아님을 나타낸다.

- (6) (a) I thought John was married (...but he apparently isn't)  
       (b) I had the impression Mary knew(...,but it seems she doesn't)

위 문장은 화자가 "John is married", "Mary knows"라는 명제가 현재시점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과거시제는 과거가 아닌 현재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부가의문문에서 나타난다.

- (7) But I thought the concert began at 8, doesn't it?/ \*didn't it?

(7) 에서 부가의문문 doesn't it은 반드시 현재시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화자는 "the concert begins at 8" 라는 명제가 사실과 반대됨을 알고 있다.

또한 과거시제는 화용상의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인다. 즉, 화자는 과거시제를 선택함으로써 어떤 발화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부드럽게 해 준다.

- (8) (a) Excuse me, I want to ask you something.  
 (b) Excuse me, I wanted to ask you something.

(8)에서 (b)는 (a)보다 어떤 사람의 사생활을 캐묻는 재치있는 방법이 된다. 이 같은 방법상의 재치는 진행상을 동반하는 과거시제로도 표현된다.

- (9) (a) Was there anything else you were wanting?  
 (b)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help me.

또한 다음 문장들을 보자.

- (10) (a) Can you help me ?  
 (b) Could you help me?  
 (11) (a) Will you help me?  
 (b) Would you help me?  
 (12) (a) John may know.  
 (b) John might know.  
 (13) (a) You shall speak to him.  
 (b) You should speak to him.

(10) (11)의 (b)는 (a)보다 훨씬 간접적이고, (12)(b)는 (a)보다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을 표현하는데 이때 might에 강세가 온다. 또 (13)(a)는 명령의 힘을 갖는데 반해 (b)는 단순한 충고로 해석된다.

또 다음 문장을 보자

- (14) I was ill last night.

과거시점의 어떤 상태는 현재시점에서는 그 상태가 사실과 반대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함으로 문(14)를 들었을 때 우리는 화자가 더 이상 현재에는 아프지 않다는 것을 추리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문장은 중의성을 띤다.

- (15) A: Do you want to come for lunch?  
 B: Well, I was expecting an overseas call.

우선 화자 B는 아직 예상되는 국제전화를 받지 못했으므로 사무실을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A의 초대를 거절하는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의미는 B가 A의 초대를 수락하는 경우이다. B의 과거시제는 국제전화가 더이상 예상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후자의 의미는 was에 강세(heavy tonic stress)가 주어질 때 더 분명히 드러난다. 다시말하면 과거의 상태는 지난 일에 불과하고 현재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는 함축의미로 인해 과거시제는 현재의 사실과 반대가 되는 것이다.

다음엔 과거시제가 부드러운 표현으로 사용되는 확장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흔히 시간영역을 공간개념으로 표현한다. 예컨대, 멀다, 가깝다는 공간 개념인데 이같은 표현이 과거나 미래 같은 시간과 함께 쓰인다(예; distant past, near future). 또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고 가까이 있는 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distance oneself(one distances himself from a proposal)나 close relationship(on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a person)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다시말하면 과거시제가 화용상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이는 데에는 이중의 은유가 숨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시간을 공간으로 해석하는 은유이고 또 하나는 가까운 것은 관련이 있고 먼 것은 무관하다는 은유이다. 이런 은유들을 통해서 화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화행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멀리 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문 (8)(b), (9)의 경우에 화자의 질문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화자로부터 질문을 멀리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화자와 직접관련이 없는 부드럽고 공손한 형태의 질문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과거 시제는 중심의미로부터 주변이므로 확장되어 나가는 원형효과가 있다.

## 2) 강변화 동사의 원형효과

영어의 string/strung과 같은 강변화 동사는 원형효과를 보여주는 형태론적인 범주를 구성한다. 즉, [ɹ]라는 과거시제를 갖는 동사들은 원형에 기초한 범주를 형성한다. 이에 해당되는 동사는 spin, win, cling, fling, sling, string, swing, wring, hang, stick, strike, slink, stick, sneak, bring 등이 있다. 그런데 string/strung과 같은 원형범주의 속성을 보면:

- (a) s로 시작하고 그 뒤에 자음이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온다.
- (b) 연구개 비음 /ŋ/으로 끝난다
- (c) 이완 고전설 모음인 /I/를 갖는다.

위에 열거된 동사들에 공통된 속성은 찾기 힘들다. 그럼에도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이유는 원형과 가족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cling*, *fling*, *bring*은 어두에 -s대신 두 개의 자음 *cl-*, *fl-*, *br-*을 갖고있어 원형과 차이가 있으나 나머지 속성은 같다. 즉, 원형동사의 (b)(c)속성은 같다. 또 *spin*, *stick*은 어두의 자음 *st-*은 원형과 같으나 어말의 자음이 /n/과 /k/로 원형과 다르다. 그럼에도 어두음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로 분류된다. 또 *win*은 어두에 s-가 없고, 어말의 자음이 연구개가 아닌 /n/으로 원형과 다르나, 이완 고전설 모음 /I/를 원형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또 *strike*은 어말의 자음이 /ŋ/대신 /k/이고, 모음이 /I/대신 /ai/로 원형과 다르나 어두음이 s-로 원형과 같다. 이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강변화동사에서는 중심구성원인 원형이 있고 나머지 동사는 이 원형과의 유사성을 통해 결국 이들이 하나의 동사 범주로 묶여지는데, 가족유사성은 곧 원형효과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3. 통사론

통사론의 원형효과는 yes-no 의문문, 명사구, 수동구문의 예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한다.

#### 1) yes-no 의문문의 원형효과

yes-no 의문문을 설명하는 방법은 두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한가지는 Searle의 관점으로 의미-화용상 이분법이고, 또 한 가지는 원형이론의 관점으로 모든 yes-no 의문문을 한 범주 밑에 모아두는 방법이다. 다음 문장을 보자.

- (16) (a) Can you help me?
- (b) Could you help me?

위 문장은 공손한 부탁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통사적으로 보면 yes-no 의문문으로서 청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대답을 Yes, I can / I could , 또는 No, I can't / I couldn't 가 된다.

이처럼 한 문장의 통사적 형식과 그 문장이 전달하는 언표내적 힘 사이의 구분이 의미-화용론으로 취급되어 왔다. 이같은 입장의 특징은 서술문, 명령문, WH-의문문, yes-no 의문문 같은 주요한 문장 형식들이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어서 통사형식이나 의미값이 분명히 구분되어 서로 겹치지 않는다고 보는 점이다. 따라서 위 문장은 다른 yes-no 의문문과 똑같은 형식과 의미값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위 문장들이 다른 yes-no 의문문처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화용 원리를 끌어들이게 된다.

이런 관점은 은유에 대한 설명도 비슷하다. 청자는 어떤 문장으로부터 문자적 의미를 끄집어낸 다음 이것이 적절치 못한 의미임을 알고나면 화용상의 유추를 통해 가능한 의도된 의미를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설명은 은유가 문법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문장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렇지 만 언어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은유는 언어행위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은유를 적절치 못하다거나(deviant, inappropriate), 특이한 현상(bizarre)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정상적인 언어사용의 범위에 끌어들이어 설명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엔 문장의 형식들의 경계가 분명치 않음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17) (a) Pass the salt!(가장 원형적인 명령문)  
 (b) Please pass the salt  
 (c) Pass the salt, would you please?  
 (d) Would you please pass the salt?  
 (e) Could you please pass the salt?  
 (f) Can you please pass the salt?  
 (g) Do you see the salt?  
 (h) Is there any salt around?(가장 원형적인 의문문)

문 (17)에서 볼 수 있듯이 (a)-(h)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

고, 가장 원형적인 명령문에서 가장 원형적인 의문문사이에 (b)-(g)라는 문장들이 다리를 놓아 결국 (a)-(h)가 하나의 연속체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서술문과 의문문의 경계도 뚜렷하지가 않다.

- (18) (a) Joe is at home.(가장 원형적인 서술문)  
 (b) Joe is at home, I think.  
 (c) Joe is at home, right?  
 (d) Joe is at home, isn't he?  
 (e) Is Joe at home?(가장 원형적인 의문문)

이상을 통해 볼 적에 Searle의 문장 형식간의 분명한 경계에 대한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명대신에 yes-no 의문문을 모두 한 범주로 묶고 그 중에서 단순한 yes-no대답을 묻는 의문문을 중심의미로 놓고 나머지 것들이 이 중심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 (19) Did you see the Prime Minister on TV last night?

문(19)는 단순히 TV를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를 묻는 의문문(yes-no polarity)일 수도 있으나 이 의미를 넘어서서 두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만약 청자가 yes 라고 답한다면 what did she say?, 또는 what did you think of her? 등과 같은 또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문(19)는 또 다른 정보를 얻기 위한 전주곡( prelude)에 불과하다.

또 한가지는 청자가 수상의 연설에 대한 본인의 코멘트를 하기 위한 예비 질문(preliminary)으로써 문(19)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즉, 문(19)는 수상의 연설에 대한 토픽을 담화속에 도입하는 질문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19)는 단순한 yes-no질문으로부터 어떤 정보나 행동에 대한 요청 내지는 진술이나 코멘트를 하기 위해 확대 사용되고 있다.

- (20) Is there a public telephone around here?  
 (21) Have you lost your keys again?

(20)은 청자가 근처에 전화가 있음을 안다면 그 전화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 (21)은 화자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처럼 yes-no의문문은 여러 가지로 확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의성을 갖게 된다.

(22) Can you play the piano?

(22)는 청자에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의문문으로 쓰이지만, 만약 칠 수 있다면 의자에 앉아 한 곡조를 쳐주십시오 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청자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난 뒤에 놀라움을 표현하는 의미도 있다.

이 밖에 형식상 의문문이지만 의문문의 기능을 못하고 놀라움을 표현할 때도 있다.

(23) Is that a fact?

이상을 통해서 결국 확장의 기초는 화용상의 문제이나 의문문이 의미-화용론으로 분명히 구분된다기 보다는 중심의미에서 주변의미가 확장되는 원형효과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 2) 타동사 구문

영어의 타동사 구문은  $[NP_1 \ V \ NP_2]$ 의 형식을 취한다.

(24) (a) The child kicked the ball.

(b) John moved the table.

(c) Mary killed the intruder

위 문장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타동구문은 주어와 목적어라는 두 가답자와 관련된 사건을 기술한다.

- ⓑ 두 가답자는 별개의 개체로서 특정지시를 한다.
- ⓒ 사건은 주어 NP인 행위자가 일으킨다. 그래서 사건의 책임은 주어에 있고 주어는 문장의 토픽이 된다.
- ⓓ 주어인 행위자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주어 NP는 대개 사람이 된다.
- ⓔ 사건후 목적어 NP인 수동자(patient)는 사건 전과 다른 상태에 놓인다.
- ⓕ 사건은 지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 ⓖ 행위자의 행동은 수동자에게 물리적 접촉을 끼쳐서 그 효과는 직접적이다.
- ⓗ 행위자는 수동자에게 변화를 입게 한다. 즉, 사건은 사역의 성질이 있다.
- Ⓢ 행위자와 수동자는 별개의 개체이며, 반대 관계에 놓여 있다.
- Ⓣ 사건은 가정이나 상상 또는 반사실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다.

위와 같은 10개의 속성을 띤 것은 어느 것이나 NP<sub>1</sub> + V + NP<sub>2</sub> 의 구문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수용 가능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즉, 어떤 경우에는 위의 대부분의 속성을 갖는 중심적인 타동구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한 두 개의 속성만 갖는 주변적인 타동구문도 있다. 말하자면 타동구문에는 원형효과가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25) Elephants uproot trees

문(25)의 NP<sub>1</sub>, NP<sub>2</sub> 는 특정 지시를 하지 못하는 일반 지시를 하고 있어 위 속성중 ⓑ를 갖고 있지 않다.

- (26) (a) The lightning destroyed the building  
 (b) We approached the city  
 (c) I dug the ground  
 (d) He brushed his teeth  
 (e) I carried the suitcase  
 (f) Mary helped John  
 (g) John obeyed Mary



(a)의 주어는 무생체의 힘으로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행위자가 못되며, (b)의 사건은 특정시점에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행위자의 행동으로 인한 수동자의 변화가 없다. (c)는 수동자에 변화가 있지만 일부분만이 영향을 받으며, (d)는 수동자가 행위자의 일부분으로 행위자-수동자가 별개의 것이 아니며, (e)의 사건은 시간상 늘어져서 연속되는 동작이고, (f)의 행위자와 수동자는 반대관계가 아니고, (g)는 행위자의 행위는 있으나 그 사건은 수동자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 중 어느 것이 행위자이고 어느 것이 수동자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또 다음 문장은

(27) I watched the movie

타동문이면서 사건을 기술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어의 입장에서 보면 지각 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런 경우 주어는 경험자(experiencer)이고, 목적어는 자극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27)은 원형의 타동구문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28) The movie interested me.

(28)에서는 자극제가 주어 위치에 있고 경험자가 목적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사건의 책임은 영화의 특성에 있게 된다.

(29) (a) I like John

(b) I've forgotten his name

(c) I regret the incident

(29)의 동사들은 정신상태와 관련된다. 이런 경우 주어가 사건을 일으킨다는 성질은 없어진다.

(30) (a) John resembles his brother

(b) The book costs 200 won

(30)에서는 주어의 동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타동구문의 주변적인 것

이 된다.

그런데 원형의 타동구문은 통사 내지는 분포상의 특성도 보여준다.

- (31) (a) I persuaded Mary to kill the intruder.  
 \*(b) Mary persuaded me to regret the incident.

(31)에서 처럼 persuade문에 내포될 수 있는 것은 Mary to kill처럼 주어  
 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만 성립된다.

- (32) (a) What happened was that the lightning destroyed the building.  
 \*(b) What happened is that John resembled his brother.

(32)에서 보면 분열문(cleft sentence)에 삽입될 수 있는 것은 상태가 아닌  
 사건에 관한 보고 문장이다.

또한 특정시점에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suddenly나 at ten o'clock  
 과 함께 쓰일 수 있다. 이에 반해 for hours on end이나 all morning과 같은  
 시간상 지속을 나타내는 표현은 쓰이지 못한다.

- (33) (a) Suddenly, at ten o'clock, ohn saw Mary.  
 \*(b) Suddenly, at ten o'clock, John obeyed Mary.

- (34) \*(a) Mary killed the intruder for hours on end  
 (b) I carried the suitcase for hours on end

또한 수동문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수동자가 행위자의 동작의 영향을 많  
 이 받을 경우이다.

- (35) (a) The ground was dug by me  
 \*(b) \$20 have been cost by the book<sup>1)</sup>

---

1) 타동사중에서 원형적인 타동사는 주변적인 타동사보다 수동의 가능성이 크다. 아  
 래에서 왼쪽이 오른쪽보다 수동의 가능성이 크다. 접촉>거리/근접, 방향>장소,  
 역학>형상, 외적반응>내적반응, 속도와 움직임>움직임, 장소이동>순열위치, 유  
 정체의 상호작용>배경안의 행동, 목표지향>출처지향, 접근>확장, 비대칭 참가자>  
 대칭 참가자, 완전행위>불완전행위

이 밖에도 주변적인 타동구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36) (a) We had a swim → \*A swim was had  
 (b) He took a walk → \*A walk was taken

(36)은 NP<sub>1</sub> + V + NP<sub>2</sub>에서 NP<sub>2</sub>가 동사에서 나온 명사이고 또한 수동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또 We had a swim과 we swam은 의미가 다르다. We had a swim 은 수영한다는 동작이 일정한 기간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We had a swim for hours on end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에 반해 we swam의 동작은 시간상 한계가 없이 지속됨을 뜻한다. 따라서 we swam for hours on end 는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이상을 통해서 타동사 구문도 원형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이 있어서 원형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20세기 언어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발전을 보여준 분야가 음운론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언어의 소리는 구체적이고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이에 반해 의미나 통사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또한 음운론에서는 몇 개 안되는 음소나 자질로 전통적인 조음음성학에서 발견된 것들이 쉽게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같은 음운론의 연구방법을 추상적인 의미나 통사구조 분석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았던 것이 전통이론이다. 즉, 몇 개 안되는 이원자질로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을 yes/no식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접근은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음운론의 여러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왜냐면 모든 범주는 yes/no 가 아닌 more/less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범주에는 원형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를 종합하면;

- ① 음운론 : ② 어두음 /r, m, n, v, ð, z, w, k, j, b, d, g, f, ø, s, h, p, t,

- k/를 [+voice]나 [-voice]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
- ⓑ 모음과 자음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계선을 올림도(sonority)로 분명히 구분할 수 없다.
- ⓒ 모음뿐만 아니고 자음도 음절핵의 자리에 올 수 있고, 자음 중에서도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이 있어서 그 자격이 각각 다르다.
- ② 형태론 : ㉠ 과거시제는 직시표현을 원형으로 삼아 사건이나 상태의 비현실성, 부드러운 표현 등으로 확장되어 쓰인다.
- ㉡ 강변화 동사들은 가족 유사성이 있다.
- ③ 통사론 : ㉠ 서술문, 명령문, WH- 의문문, yes-no 의문문 등 주요한 문장형식들간의 경계가 없다. 예컨대, 명령문과 의문문은 연속선상에 있으며, 서술문과 의문문도 연속선상에 있다.
- ㉡ 타동사 구문; 타동사 구문도 그 자격이 똑같지 않고 원형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원형적일수록 수동문의 가능성이 크다.

## 참고문헌

- 이기동. (1991). *인지문법*. 서울 : 한신문화사.
- 이기동. (1992). *영어동사의 문법*. 서울 : 신아사.
- 이기동. (1995). *영어동사의 의미(상·하)*. 서울 : 한국문화사.
- Lakoff. G. (1987).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Univ. of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Univ. of Standford : Standford Univ. Press.
- Langacker. R. W. (1991). *Concept, image,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s of grammar. Berlin : Walter de Gruyter & Co.
- Talor, J. R.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New York : Oxford Univ. press.